신안 햇 천일염 다음달 출하… 품귀 현상 진정되나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 수요 폭발…가격 전년비 64% 상승
정부, 가격 급등시 수매 후 할인 계획…생산자연합회, 구입 자제 당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천일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수급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천일염 품절사태와 가격 급등, '사재기' 등 갖은 논란 속에서 생산자와 정부가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품절 사태와 가격 상승세가 여전해 천일염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는 18일 "올해 7월부터 2023년산 햇소금을 본격적으로 매입, 출하할 계획이다"며 "현재 시장에서 값이 비싸고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천일염의 구입 자제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천일염 품귀' 등의 언론보도로 소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생산자도 바라는 상황이 아니라며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일선 농·수협은 천일염 판매 문의로 고유 업무에도 지장을 겪는 상황이다.

이철순 생산자연합회장은 "일부 농협에서는 양파·마늘 수매 일정과 겹쳐서 천일염 출하업무를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가중된 소비자들의 천일염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업무를 보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신안군은 매년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23만 t 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되는 천일염의 약 35%는 농협을 통해 유통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2023년산 천일염 매입이 시작된다.

올해 천일염 품귀 현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 기상여건이 한몫하고 있다. 올 4~5월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아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6월부터 기상 여건이 예년과 비슷해 생산량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정부도 가격이 급등한다면 정부가 수매한 후 할인 방출하는 계획을 내놨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농·수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에 서 민경제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적극 요청했다"며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방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히며 "다만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금 가격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사재기 논란 속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굵은소금 소매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5㎏에 1만2942원으로, 1년 전 1만1185원보다 15.7% 비싸고 평년의 7883원과 비교하면 64.2% 높다.

정부와 생산자협회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가 여전한 이유다. 당장, 광주와 전남 지역 소매점에서는 판매 가능한 천일염이 부족해 개인당 구매 수량에 제한을 두는 등 소금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농협-고향주부모임 농촌 일손돕기

북구 지양동 매실농가 방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석곡농협,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와 광주시 북구 지야동의 매실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농촌일손돕기에는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 회원들로 구성된 행복나눔봉사단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및 석곡농협 임직원등 30여명이 참여해 매실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탰다.

윤정숙 고향주부모임 광주시지회장은 "일손이 부족해 수확을 앞둔 매실을 두고 메마른 한숨을 짓고 계실 농업인 분들을 생각하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일손돕기에 참여했다"며 "고향주부모임은 농번기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고성신 본부장은 "따가워진 햇볕 아래서도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해 한달음에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 주신 고향주부모임 회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농협광주본부는 임직원봉사단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하는 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인력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등어·우럭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26일까지 특별전…14개 마트·25개 온라인 쇼핑몰 참여

해양수산부는 15~25일 '대한민국 수산대전 6월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대전은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행사다.

해수부가 1인당 1만원 내에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하면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등어, 명태, 갈치, 조기, 멸치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수산대전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광어나 우럭회 등 양식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4개 마트와 25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폭염 땐 돼지·닭 사료 영양가 높여야"

농진청, 무더위 대비 축산농가 시설 관리 요령 안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되면서 축산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폭염 속 돼지와 닭 사육 농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시설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나섰다.

18일 농진청에 따르면 폭염이 오면 돈사와 계사에 설치된 냉풍기, 냉각판을 가동하고, 그늘막과 자동 물뿌리개를 설치해야 냉방시설 가동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 냉각판은 축사 안 습도가 바깥 습도보다 높은 날에 가동해야 냉각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환풍기로 내부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해 축사 안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진청은 고온 환경에서는 돼지와 닭의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므로 영양가가 높은 사료를 급여해 영양 부족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육 돼지 사료에 비테인 0.1%를 첨가해 주면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어미돼지에게는 에너지와 아미노산이 보강된 사료를 주고, 유기산제, 비타민C와 E, 광물질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육계(고기용 닭)는 사료 섭취량에 비례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사료 섭취량을 늘리려면 10~20도의 시원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산란계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양소와 비타민 요구량이 늘어나므로 사료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해 먹이면 산란율 감소와 달걀 껍데기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송이버섯 신품종 '이담' 개발

농촌진흥청은 국산 양송이버섯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품종 '이담'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담은 최근 5년간 국산 양송이버섯 보급률 1위와 2위를 차지한 새한과 도담 품종을 교잡한 버섯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밝은 흰색에 육질은 기존 품종보다 단단해 식감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좋다.

또 생육 온도 범위가 13~20도로 넓어,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버섯 균 접종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수확 일수는 약 47일로, 기존 버섯보다 1~1.5일 빠르며 다른 품종보다 생산량도 많다.

농촌진흥청은 하반기 이담의 재배 조건을 설정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청자 연령 상한이 기존 75세에서 80세로 올라가고, 계원 자격 유지 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점 등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린다.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 서류 준비 방법과 계원 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